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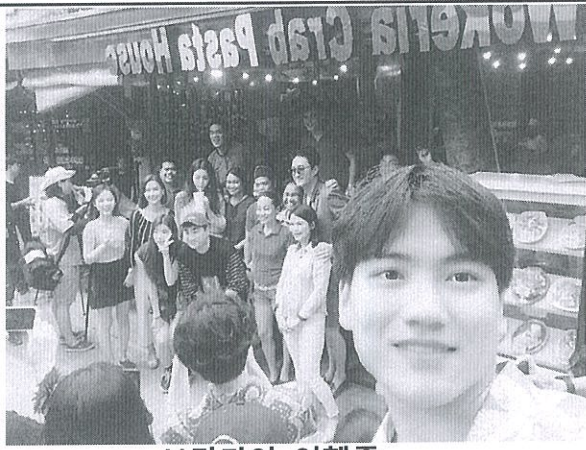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윤종범	소 속	금오공과대학교
학 년		학 번	
연수 국가	필리핀	해외 연수 기관	WNU
연수 기간	2018.12.31 - 2019.2.9		

보고 느낌 점, 어학 연수에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등을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사진 등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을 때 막연히 해외에 나가고 싶고 '인생을 살면서 해외에서 6주 동안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주변 다녀온 지인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물어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그룹수업엔 주변 친구들과 달리 영어 한마디도 못해보고 수업이 끝나 오히려 친구들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고 6주 동안 잘 버틸수 있을지, 실력이 정말 늘어서 갈 수 있을지 고민과 걱정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깐 들어보고 노력해야지 하면서 하루 한문장씩 번역기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조금씩 하다보니 일주일, 이주일 실력이 일취월장으로 늘지는 않지만 한마디씩 뱉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지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 서로간의 문화를 이야기 하고 먼저 서로간의 실례가 되지 않는 질문부터 서로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꾸준히 영어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작문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필리핀에 있으면서 가장 특별했고 기억에 남는 것은 현지 선생님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와는 거리가 조금 멀어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와서 현지 교통수단을 타고 항상 보던 도심이 아닌 시골로 들어가 보기도하고 전통시장을 가서 요리 재료를 사보고 직접 선생님께서 손님이라고 대접해주는 손길이 너무 고맙고 따뜻한 정성을 선물 받은 것 같아 기억에 남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6주라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 짧았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를 나가다보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들고 공부에만 집중하기엔 너무 아쉬워 여행도 이곳 저곳 다니다 보니 눈 떠보니 한국 귀국하는 날짜였습니다. 다음에 이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장기간으로 나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싶습니다.



보라카이 여행중



필리핀 도로



선생님집 방문



선생님집의 식사